

안녕하세요 화학과 김재원입니다.

우선, 원 내로 유입되는 전염병 확산 방지 및 방역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8일자로 고대권 학우께서 원 내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 건의드렸습디만, 'GIST CV 코로나 비상대책실무위원회(2020.5.8.)에서는 2020.6.23(1학기)까지는 실내 체육시설/실외 체육시설/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등 현재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답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우리 원의 다수이자 핵심 구성원인 학생들의 실질적 의견을, 전문가들 간의 회의에서 반영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우리 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위와같은 회의 결과가 도출 되었는지, 학생들은 그 회의에 다루어졌던 세부 내용이 궁금합니다. 행여나, 회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다수에게 공감을 얻는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은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감에도, 대학원생들의 연구실 출근은 교수들의 '재량'에 맡기는 원 내 컨트롤타워의 이중적인 행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생들에게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매 한가지 입니다.

더불어, 4월 21일자 중대본 회의에서의 국무총리 정세균씨의 발언을 빌리자면,

"특히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 개방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방역환경이 준비되는 대로 개방을 검토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한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소 및 대학 광주과학기술원도 국민, 정부의 요청에 따라 빠른 방역작업 후 체육시설을 개방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잔류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체육 시설 개방을 바라는 모두가 전염병으로 인해 처해있는 상황을 가볍게 보고있는 것은 아니나, 앞서 언급한 정부의 지침과 학생들의 운택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해, 위원회 측에서는 체육시설 개방을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